

## 미제에 의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랍탈적성격

김 서 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화〉는 미국식가치관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입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량면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6~97페이지)

랭전종식후 미제는 《세계화》, 《일체화》의 간판밑에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경제분야에서의 아메리카《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었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바로 미제의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조작책동이다.

미제에 의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조작책동은 랭전종식후 미제가 메히꼬와 캐나다를 망라하는 지역경제빨력을 통하여 이 지역을 예속시키며 나아가서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를 조작함으로써 아메리카대륙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를 좌우지하려는 야망의 발로이며 그것은 철두철미 랍탈적성격을 띠고있다.

미제에 의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랍탈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랭전종식후 미제가 더욱 격화되는 저들의 경제적위기를 모면하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지배해오던 미국독점자본은 미국자본주의경제의 부패성으로 하여 과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유럽나라들과 일본이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하였을뿐만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신흥공업국가들도 새로운 경쟁자로 출현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점차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국독점자본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북아메리카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값죽은 노동력을 리용하는데서 찾으려고 획책하였다. 그것은 미제가 저들보다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메히꼬를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에 끌어들이고 메히꼬의 값죽은 노동력을 리용하여 제품원가를 낮추며 국제경쟁력을 높여보려고 책동한데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다.

원래 미국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값죽은 노동력을 리용하여 제품원가를 낮추어보려고 동아시아지역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였다. 동아시아지역은 미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임금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메히꼬는 미국과 린접하고있어 수송비가 적게 들고 임금수준도 동아시아지역에 비하면 낮았다. 미국기업들은 메히꼬를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에 끌어들이면 메히꼬의 값죽은 노동력을 제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1991년 미국과 메히꼬의 가공공업부분에서 시간당 평균임금차이가 7배이상이었다는것

을 놓고볼 때 미국이 메히꼬를 끌어들이는 흥심을 잘 알수 있다.

그뿐만아니라 미제는 메히꼬를 거점으로 생산하고있는 일본과 서유럽나라들의 제품이 미국시장에 쓸어드는것을 막고 저들의 경제적위기를 해소해보려고 꾀하였다.

일본과 서유럽나라들의 기업들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격화되는데 따라 메히꼬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제품의 생산, 조립, 가공을 하고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우회전술에 매여 달리였다. 현지의 값죽은 노동력을 리용하여 제품원가를 낮추고 메히꼬에 부여된 《특혜관세제도》를 통하여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공세를 강화한 일본과 서유럽나라 기업들의 우회전술에 의하여 미국산업은 오래전부터 쇠퇴몰락해왔다. 이로부터 미국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체결국에 메히꼬를 끌어들이고 원산지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우회수출을 막아보려고 획책하였다.

이처럼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는 미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저들의 경제적위기를 모면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략탈정책, 예속적인 보호무역정책의 산물이었다.

미제에 의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략탈적성격은 다음으로 그 조작경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조작의 실제적인 계기는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자유무역협정교섭이었다.

※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전신은 미국과 캐나다사이의 자동차특혜무역협정이였다. 이 협정은 1965년에 미국과 캐나다사이에 자동차무역분야에서 관세특혜를 적용할데 관한 합의에 따라 체결되였다. 이 협정은 어디까지나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을 틀어쥐고있는 미국대독점자본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 략탈적인 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1990년 6월에 시작된 미국-메히꼬자유무역지대조작을 위한 교섭에 캐나다가 참가한것은 그해 9월이었으며 이때부터 교섭은 북아메리카의 전지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조작하기 위한 교섭으로 추진되였다. 당시 캐나다 수상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미국-캐나다자유무역협정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메히꼬는 오래동안 계속된 채무위기와 국제수지악화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에 참가하게 되였다.

미국은 메히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악용하여 메히꼬로 하여금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산농산물과 공업제품들을 대량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메히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캐나다는 미국과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이 또 다른 나라와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 나라가 여기에 개입할수 있다는 구실로 이 교섭마당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진짜목적은 메히꼬시장에 침투하여 날로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메히꼬에 대한 자본침투를 강화하여 캐나다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참가국들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통합에 합의하였으나 교섭의 체결과정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교섭과정은 참가국들사이의 의견대립과 충돌로 하여 여러차례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지어 결렬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교섭과정이 참가국들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이어지게 된것은 바로 북아메리카시장을 독점하려는 미제의 일방적인 요구와 관련되어있었다. 미제는 저들의 요구만을 고집하면서 캐나다와 메히꼬에 양보를 강요하였다.

미제는 어떻게 하나 메히꼬와 캐나다의 시장통합협정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회유와 압력 등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체결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은 협정이 각국 정부들의 비준을 거친 후 국회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도 계속되었다. 협정이 각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조건에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국회승인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메히꼬와 캐나다에서 협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승인이 지연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협정에 대한 반대율이 56%에 달하고 지지율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제일 큰 주인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3개 주에서 국회승인을 반대하였으며 식료, 섬유가공부문과 각종 노동단체, 환경보호단체들도 이에 합세하고있었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가 마치 캐나다와 메히꼬인듯이 떠벌이면서 매수와 회유, 위협공갈 등으로 국회승인을 강압적으로 추진시켰다. 캐나다에서 국회승인이 캐나다력사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마주르니 수상에 의하여 은퇴직전에 강행적으로 단행된것, 메히꼬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높아지는 속에서 국회승인이 한달이나 앞당겨 조급하게 진행된것 등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미제는 1992년 10월 7일 메히꼬, 캐나다를 끌어들여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93년 11월 17일 미국회에서는 겨우 234 대 200의 표차이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되게 되었다.

1994년 1월 1일 북아메리카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 메히꼬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리하여 2 100여만km<sup>2</sup>의 면적과 3억 7천만명의 인구, 약 7조US\$의 국민총생산액을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규모의 지역경제권이 자본주의세계에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조작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이 참가하고 주도하여 온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세계경제에도 파국적인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있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조작으로 하여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보호주의의 강화, 경제의 지역화, 뿔럭화가 만연되게 되고 자본주의국제무역질서는 파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7월당시 세계무역기구에 등록된 지역경제협력기구만 해도 무려 144개에 달하였는데 그중 60%가 1990년대에 들어와 창설된것이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지역경제협력기구들의 증대로 표현되고있는 지역적보호주의의 급속한 출현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미국이 거대한 규모의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함으로써 자본주의세계경제는 지역경제뿔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1930년대와 같은 심각한 파국과 혼란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상의 모든것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가 미국의 주도하에 조작된 랍탈적, 제국주의적통합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반동정부가 떠들고있는 《지역공동의 리익》이란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략탈적인 성격을 은폐해보려는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독점자본의 하수인인 미국반동정부는 날이 갈수록 쇠퇴몰락해가는 미국독점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하고 주도해왔다. 따라서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는 미국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반영한 제국주의적통합체로서 략탈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것은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클린톤이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협정에 대한 미국투표심의전날인 1993년 11월 16일 《우리가 협정을 체결하면 메히꼬와 기타 나라들이 우리 편에 설것이며 우리가 더 힘있는 지위를 차지할것이다.》라고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저들의 경제위기를 발전도상나라들에 전가하며 이 지역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의 산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독점자본의 옹호자들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의 략탈적성격을 은폐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우리는 현시기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는 미제의 《세계화》, 《일체화》책동, 지배주의적책동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폭로분쇄하며 세계 진보적나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